

### 호남 첫 국민참여재판 법조계는 어떻게 봤나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한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배심원들의 참석률이 애초 예상보다 높은 50%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법원·검찰·변호인 모두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급급적 응어해설과 재판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검찰과 변호인들은 각각 피고인의 혐의 사실 입증과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 무난한 출발... 온정주의의 경계해야

### 배심원 평결 존중...형량 불만에 재판 불신 우려도

결국,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이끌어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만큼 배심원 평의 결과와 재판부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에 대해서는 불만스런 모습은 보였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인 신모(여·20)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자신의 집에서 18개월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한 만큼 집행

유예로 결론을 모았고, 재판부는 최대한 수용했다. 이날 배심원 9명 중 6명은 집행유예를, 3명은 실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 정경현 부장판사는 “배심원은 9명이었는데, 7가지의 자기 다른 양형이 나왔다”면서 “그래서 이중 상위와 하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정도의 양형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배심원단의 판단이 온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검찰 관계자는 “배심원들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살인죄에 적용되는 양형을 선택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피고인의 딱한 처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날 피고인의 남편이 생후 5개월 된 딸을 데리고 나와 법정에서 증인을 썼고,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일부 판사들도 “통상 살인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며 “이날 재판은 피해자가 생후 18개월 된 피고인의 딸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인 남편이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비롯,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급 법원에서 1심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을 때 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23일 오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구·부산·춘천·제주지법 등 전국에서 열렸던 국민참여재판 중 5건이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했다.

판사들은 “판결에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과 상급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며 “오히려 재판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비가 온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다.

광주	비 후 오전에	맑	13~17℃
포항	비 후 오전에	맑	13~16℃
여수	비 후 낮에	맑	14~17℃
안동	비 후 낮에	맑	13~17℃
대구	비 후 낮에	맑	13~17℃
부산	비 후 낮에	맑	13~17℃
인천	비 후 낮에	맑	13~18℃
대전	비 후 낮에	맑	12~17℃
충주	비 후 오전에	맑	12~16℃
전주	비 후 오전에	맑	12~16℃
목포	비 후 오전에	맑	13~17℃
제주	비 후 오전에	맑	9~12℃

서울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3:46 썰물 < 08:56  
여수 밀물 < 10:17 썰물 < 04:27

▲해돋이 05:50 ▲해질 19:12 ▲달돋이 22:08 ▲달질 06:5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씨						
최저/최고	7/18	11/21	10/20	8/24	9/25	12/26

## 전남대 교수 징계 '시끌'

강종장 '공채 답합' 직위해제 5명 중징계 요구  
교수평의회 특별위선 '징계 근거 없다' 반발

교수 공채과정의 답합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전남대 교수 5명의 징계에 대해 전남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징계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대 평의회 소속 '교수 직위해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장선)는 지난 21일 교내 내부 통신망에 보고서를 띄우고 "지난 2월 26일 대학본부의 사화대 교수 3인과 공대 교수 2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중징계 요구 사안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직위해제 해당 교수들의 소청에 따라 지난 3월초 평의회 분회의 결정사항으로 구성됐다. 5명의 특별위원들은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벌인 진상 조사의 결과물을 내놓고, 대학본부 측에도 전달했다.

이들은 사화대 교수 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는 징계사유가 아닌 공채과정의 공정성만을 조사했을 뿐이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중징계라는 과도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우정주 교무처장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코멘트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종장 전남대 총장은 지난 2월말 교수 공채과정의 답합 의혹이 있다며 사화대 정외과 교수 3명, 여수 캠퍼스 공대 교수 2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4·15 학교 학원화 조치 전면 철회 촉구'를 위한 분회집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학교 자율화 조치 공개 토론 하자"

전교조 광주지부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4·15 학교 학원화 조치 전면 철회 촉구'를 위한 분회집 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은 공개 토론을 통해 교육주체 의견 수렴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내 12개 지회 소속 회원 518명이 참여한 이날 선언에서 이들은 "인건과 경남의 경우 학교 학원화 조치에 대해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광주시교육청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시교육청이 비판없이 답습하겠다는 것은 시교육감 스스로 새 정부를 대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와 관련 ▲비상분회 총회 개최 ▲40만 교사 서명 및 팩스 보내기 운동 ▲현수막 걸기 등으로 부당성을 알려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

50만불 이상 투자 외국인 한국 영주권 취득 가능

앞으로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바로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투자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에 상관 없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바로 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노후 가로등·램프 교체 했더니 광주 주요 도로 3배 밝아졌다

최근 노후 가로등과 램프 교체가 이뤄진 광주시내 주요 도로가 예전보다 3배 가량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최근 상무로와 박물관로, 월드컵4길로 등 3곳에서 조도(照度)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10~15룩스에서 37~49룩스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역과

송정리역, 대인광장 등에도 조명 타워를 설치해 밝기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올해 58억원을 들여 시내 5개 노선 30km 구간의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23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 비리 공무원 징계 시효 5년으로

봉사명령제 등 처벌 강화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강등' 제도와 함께 '공직자봉사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공금 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금품수수 등 중요비리자에 대한 징적(18개월), 강등(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승급 제한기간도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종류인 해임과 징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해 1개월 강등과 함께 징적 3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등산객 사고 잇따라

불철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광주지역 인근 산에서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50분께 봄소풍을 위해 등산하던 김모(15)군이 무등산 바깥에서 중심사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께에는 무등산에서 내려오던 정모(14)양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광주동부소방서 119구조대 박정주 소방교는 "등반에 맞는 개인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음주 등반은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

= 합격률 전국 1위 =

## 공인중개사 오전반 야간반

4월 첫진도 시작반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남·48), 최영아(여·3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재능방송·한국경제TV·부동산TV출연 강사진!

개강 5월1일 주야 합격  
을 원하신다면 반 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을 선택하십시오.

국비무료 교육보험 가입근로자 교육비환급  
현재접수중 ☎ 529-8111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세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 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 개원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원빌딩 옆 청송빌딩 6층

= 가장 안정된 직업, 늦었지만 나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상한연령까지 =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산직, 특검직, 통관직, 보건의

※ 특별한 개월, 가점 추첨자들을 대상으로한 09:30분 강의시작반 모집 ※

5월 9급 지방직대비 개강  
-완충반 개강: 4월 21일-  
-5주완성·월정·교필직대비\*  
-개강(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십시오!!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총)회차 80만원  
-1년(총)회차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www.mdgosl.co.kr ☎ 222-4560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 생활안내 광고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 주택관리사

★ 2010년 ★

### 의무채용

★ 실시확정 ★

##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11회  
9월 7일 시험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 현대고시학원

(광주 동부정형서 옆) ☎ 062)222-6790, 232-1088